

지난해 건설수주액 166兆... 전년보다 7.4% 증가

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실적 호조를 두고 회복세 전환과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10일 대한건설협회(회장 유주현)에 따르면 2019년 총 건설수주액은 166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.

이는 2018년(154조5277억원) 대비 7.4% 증가한 액수다. 공공(15.5%), 민간(5.2%) 모두 증가했다.

4분기 수주의 대폭 증가가 전체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.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5.5% 증가한 5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.

이에 대해 건협 관계자는 “건설정책

4분기 수주 59.4兆 힘입어
전체 실적 ‘대폭 개선’ 성공
공공 15.5%·민간 5.2% ‘↑’
건협 “올해도 회복세 예상”

전환과 더불어 경제성장률 2%대 방어를 위한 정부의 독려가 4분기 수주의 대폭 증가로 나타났다”고 설명했다.

실제 12월에만 세종~안성 고속도로(2조원), 상대원2구역 주택 재개발(8000억원), 광주 광천동 주택 재개발(4000억원),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(5000억원), 현대중공업 R&D

센터(3000억원), 판교 알파돔 복합시설(3000억원) 등 굵직한 공사의 계약이 체결됐다.

다만, 2015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주액은 지난해 141조2000억원으로 2016년(160조5000억원), 2017년(149조7000억원)에 못 미쳤다.

건협 관계자는 “연간 건설수주액이 2016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”면서 “올해 경기활력을 위한 정부 건설투자 확대계획 등 각종 인프라 확대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정회훈기자 hoony@